

일제말기 만주 여행서사와 주체 구성 방식

진영복*

1. 만주 여행과 주체 구성
2. 비동일적 주체 구성과 미적 자율성의 시선-이효석
3. 반동일적 주체 구성과 계몽의 시선-이태준
4. 동일화의 주체 구성과 동조의 시선-이석훈
5. 결론

국문요약

일제말기 만주 여행서사에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경계지점을 오가며,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다수의 시선들이 작동한다. 이 시선이 때로는 차별화로 때로는 동일화로 첨예하게 드러나고, 이를 통해 여행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효석, 이태준, 이석훈의 만주 여행서사를 중심으로 타자에 대한 시선과 주체 구성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탈식민주의적 전략 지점과 방식을 파악하였다.

이효석의 경우, 만주 여행 서사에서 식민자와의 비동일화를 통해 주체 구성하고, 만주를 미적 자율성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는 만주에 혼재하는 다양한 민족문화들에서 타자성을 발견하고 세련된 감각을 통해 미와 문화의 보편성과 우연성에 대해 사유한다. 그러나 다양성과 우연성에 기반한 심미적 삶의 추구가 현실로부터 거리를 둔 탈역사화된 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인다. 이태준은 식민지 지배자와의 반동일화를 통해 주체를 구성하는 한편, 만주를 계몽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는 문화본질주의에 입각하여, 만주를 타자로 규정하는 한편 일제의 목표와 정책을 저항하면서 식민 주체의 논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 즉 반동일화의 방식으로 조선인 내지 자신의 주체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부정하는 대상을 옹호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석훈은 만주국의 정책을 동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식민자와 동일화를 통해 주체를 구성한다. 그는 식민자의 논리인 내선일체를 위해 정진함으로써, 2등의 모방된 식민자로 조선의 확대된 영토를 만주에 건설하려는 욕망을 표출한다. 그러나 내선일체의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균열을 경멸하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위한 도피처로 만주행을 선택한다. (주제어: 여행서사, 민주, 시선, 주체, 비동일화, 반동일화, 동일화, 미적 자율성, 계몽, 동조)

1. 만주 여행과 주체 구성

1920년대 최서해의 작품에서 보듯, 근대문학에서 만주는 정치적 핍박과 가난을 피해 들어간 유민의 생활공간이었다. 더 나은 삶을 개척하려는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1932년 만주국이 수립되고 중일전쟁 이후 병참기지로써 만주와 조선이 경제적 블록으로 묶이며 경제적 호황을 구가하자 급증한다.¹⁾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1936년 부임 초부터 ‘선만일여(鮮滿一如)’를 내걸고 대륙병참기지화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²⁾ 일본 내각은 ‘재만 조선인 지도요강’을 제정하고 조선인을 ‘국책이민’의 대상으로 정하여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장려하였다.³⁾ 중국과 일본이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을 벌였던 만주로의 이주는 일제의 군사적 점령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 결과 1943년에 조선인이 약 150만 명으로⁴⁾ 늘어날 정도로 만주는 조선인의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확장된다.⁵⁾

-
- 1) 서경석은 만주국 성립 이후 식민지 조선인은 만주를 희망의 공간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86호, 2004, 342쪽.
 - 2) 1936년 10월 29일에 ‘투먼(圖門) 회담’이 개최되는데, 투먼 소재의 일본 영사관 분관에서 조선총독부의 미나미 지로와 만주국의 우에다 겐키치(植田謙吉) 관동군사령관이 회견을 갖고 조선-만주국간 정책 협약을 맺는다. 이 회담의 결과 만주이주 계획, 선만 직통화물 운임 개정, 국경공동경비 등 구체적인 시책이 공표되기도 하였다.
 - 3) 함대훈에 따르면, 1938년 12월 관동군 중심으로 관계 기관 총동원 회의를 갖고, 1939년 1월 현지안을 작성하여 일만회의를 개최한 후 그해 5월 동경에서 이민국책 회의에서 조선이민을 국책이민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함대훈, 「남북만주편담기」, 『조광』, 1939. 7. 79쪽.
 - 4) 이석훈, 「滿洲の話」, 『新時代』, 1944. 5, 73쪽.

한편 만주는 이국적인 풍토와 문화를 구경하는 여행지로도 부상한다. 대중적인 근대 관광의 시대가 열리자 ‘짜팬 투리스트 뷔로’⁶⁾ 조선 지점을 통해 일본, 만주, 구라파 지역의 기차 승차권 발매와 호텔 예약, 여행 상해보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고, 1934년 시속 80킬로로 달리는 대련 하얼빈 간 특급 열차가 개통되자, 만주는 스펙터클한 이국적 공간과 풍경을 여행하는 일종의 구경거리로 변형된다. 만주 여행은 여행증명서 없이 철도를 이용하여 쉽게 갈 수 있어 조선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선택될 정도였다.⁷⁾ 만주로의 생활세계의 확장과 여행은 철도를 통해 가능해졌는데 철도는 자연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공간의 연속체를 소멸시키고, 자연 자체를 축소시켜 풍경으로 격하시키는 역할을 한다.⁸⁾ 또한 여행은 일상적인 삶의 요소가 아니라 일상이 선정적인 구경거리로 변형되는 소비행위가 되기도 하는데, 철도를 통한 만주여행은 다양한 이국적인 일상세계를 구경하는 현대성의 지표로 선망되기도 한다.⁹⁾ 만주 여행의 경유지인 여순, 대련은 러일전쟁의 역사적인 장소로 러시아로 대표되는 서구를 물리친 일제의 군국주의의 힘을 확인하는 장소였고, 봉천(심양)은

5) 1926년 만주에서 논농사를 짓는 조선인 수는 약 542, 869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조선인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 日本移民史研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東京:龍溪書舎, 1976, 549쪽.

6) 『동아일보』, 1932. 12. 20. 식민지 시대 여행 문화에 대해서는 광승미, 식민지 시대 여행 문화의 향유 실태와 서사적 수용 양상, 『대중서사연구』 15호, 2006, 6, 이경훈 『식민지와 관광지-만주라는 근대 극장』, 『사이』 6호, 2009. 등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7) 학창시절을 회상하는 글에서, “1933년 봄 만주 수학여행을 따라갔던 일본군 예비역 중좌 일본인 교사 후꾸다의 학교 동기생이 만주 관동군 사령관으로 부임하고 있었던 덕분이 만주 안동을 거쳐 봉천을 지나 신경까지 가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 가는 곳마다 일본인 대우를 받으면서 구경을 잘했다.”라는 문구에서도 당시 수학여행의 실상을 알 수 있다.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동고 100년사』, 1998, 145쪽.

8) Wolfgang Schivelbusch,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1999, 2-3장 참조.

9) V. R. Schwartz, 노명우·박성일 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64쪽.

옛 청나라의 풍물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근대적 계획도시로 건설되는 만주국 수도 신경(장춘)은 만주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었으며, 하얼빈은 서구의 도시적 풍물과 생활상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와 달리 간도는 집단 이식으로 떠난 조선 이주민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만주 여행은 경성-신의주-봉천-신경-하얼빈 노선과, 경성-회령-연길-목단강-하얼빈 노선으로 전개된다. 전자는 만주의 대표적 대도시를 경유하는 문명과 문화의 중심축을, 후자는 조선 이주민이 넓게 분포하는 작은 소도시와 농촌을 여행 대상으로 삼게 된다.¹⁰⁾ 전자는 과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관람하는 이효석과 이태준 등과 같은 작가의 여행 일정과 일치하고, 후자는 1940년 7월 고노에(近衛) 내각의 ‘동아시아 신질서’¹¹⁾ 정책과 부합하는 생산문학의 범주에서 조선 개척민의 실상과 만주의 풍토를 답사한 이석훈, 정인택, 채만식, 이기영 등의 여행 일정과 일치한다.

이처럼 만주는 스펙터클한 이국적 풍모를 구경하고 일제의 힘을 확인하는 여행지이자 조선인의 생활세계를 확대하는 이주 공간이었다. 여행자의 시선이건 이주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선이건 간에 만주는 시선의 대상이 되고, 조선인이 타자를 상상하고 자기를 주체화하는 공간이자 기표로 기능한다. 그래서 후발 제국주의 세력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전쟁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1940년 전후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침예한

10) 윤대석은 전자는 신경-하얼빈을 여행하려는 사람이, 후자는 개척촌을 통해 만주국의 발전상에 주목한다고 보았다.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74쪽.

11) 고노에가 주장하는 ‘동아시아 신질서’는 동아의 경제 블록을 통해 영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배격하여 세계사적 전환을 이루자는 논리로, 근대 초극론의 일환이다. 채만식은 지나의 “그 넓고 좋은 토지가 영·미 등의 외(外)자본주의에 이용되고 있는 한 그대로 방시(俟視)할 수 없는 사태”였고, 지나의 “주인은 동아의 장자인 우리 일본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동아 협동체 논리에 찬성한다고 선언한다. 채만식, 「대륙경륜의 장도, 그 세계사적 의의」, 『매일신보』, 1940. 11. 22-23. 『채만식전집』 10권, 창작과비평사, 1989, 582쪽.

경계지점인 만주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동양과 서양, 일본과 중국 등의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조선인의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다양한 관계항이 얽힌 다수의 주체들이 대립하고 다투는 장소였던 만주는 피식민자인 조선인이 새로운 타자를 발견하고 식민자와 자기를 상상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일본어 몇 마디 배와 안다고 만인한테 가슴을 내밀고 덜렁시는 무리들 한편 만인들은 선계라면 마차도 잘 안태운다.”¹²⁾라는 이운곡의 발화에서도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이중의 지위에 처해 있는 조선인의 처지가 잘 드러난다.

이처럼 일제 말기 만주 여행서사¹³⁾에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경계 지점을 오가며,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다수의 시선들이 작동한다.¹⁴⁾ 다양한 민족에 대한 차별화와 동일화의 시선을 통해 조선 여행객은 자기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정체성이란 결코 고정되거나 완결된 산물이 아니라, 총체적 이미지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호미 바바에 따르면, 식민지에서 “주인과 노예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노예화된 주인과 지배되지 않는 노예의 문제만이 존재한다.”¹⁵⁾ 즉 식민지 만주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주인과 노예의 균열, 전치와 반복, 차이화가 발생한다. 또한 시선의 주체가 피식민자일 때, 주체는 타자와 식민 지배자 사이를 오가며, 비동일화(Disidentification), 반동일화(Counter-Identification), 동일화(Identification)를 통해 주체를 재구성한다.

12) 이운곡, 「선계」, 『조광』, 1939, 7, 64쪽.

13) 이 글의 연구 대상은 여행자의 여정을 좇는 표면서사와 과거회상의 내면서사로 구성되는 여행 소설의 여로형 서사가 아니다. 이 글에서 ‘만주 여행서사’는 만주를 여행하며 마주치는 대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사이에서 구성되는 서사가 있는 에세이와 소설을 일컫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14) 조나단 킬러는 여행자와 원주민을 구별하는 것은 특별한 기호학적 시선이며, 원주민에게는 자연스런 자신들의 문화가 여행객에게는 복합적인 기호로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Jonathan Culler, *Framing the sign : criticism and its institutions*,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8, p. 155,

15) Homi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261쪽.

이런 점에서 일제 말기 만주 여행서사에 대한 분석은 식민지 지식인들의 타자에 대한 시선과 주체 구성 방식을 고찰하는 작업이다. 특히 일제 말기 만주 여행서사에서 이효석은 철저한 여행자의 시선을 통해 식민자와의 비동일화된 주체를, 이태준은 여행자의 시선으로 이주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식민자와 반동일화된 주체를 구성한다. 반면에 이석훈은 이주민의 시선을 통해 식민자와 동일화된 주체를 구성하고자 하지만 분열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선과 주체 구성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효석, 이태준, 이석훈의 만주 여행서사를 중심으로 타자에 대한 시선과 주체 구성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타자들과의 동일시와 비동일시의 역학 관계와 식민자와의 관계 설정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탈식민주의적 전략을 파악할 것이다.

2. 비동일적 주체 구성과 미적 자율성의 시선—이효석

이효석에게 만주 특히 하얼빈은 서구의 이국적 풍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이국적인 서구의 동경은 문명(civilization)이 아닌 문화(culture)의 시각에서 미와 문화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효석은 만주에 혼재하는 다양한 민족문화들에서 타자성을 발견하고 세련된 감각을 통해 미와 문화의 보편성에 대해 사유한다.¹⁶⁾ 타자화된 기표를 발견하고 문화적 보편성을 사유한다는 것은 진리의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이효석에게 문화와 지식은 구성적이고 생산적인 것이어서 주체적인 전유가 가능한 대상이다. 문화는 차이화의 기표이지만

16) 이러한 태도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은 외래의 것이요, 이곳의 것은 아닌 것이다.”라는 이효석의 이전의 인식과는 변화가 있다. 이효석, 『화춘의 장』, 『조선일보』, 1937. 5. 4-8, 『이효석전집』 7권, 창미사, 2003, 142쪽.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이 물질적 실천은 오랜 시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타자성의 기표는 가치 있는 차이화를 발생시키고 문화적 전통과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이효석에게 이국적이고 다문화적인 하얼빈은 “전통의 순수함”¹⁷⁾과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므로 더욱 매혹적인 공간이 된다. 전통의 순수함이란 생활 속에서 우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해 온 예술과 문화의 정수를 의미한다.

1) **새로움의 일색으로 무엇이든 부서 버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왕의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입김을 불어넣어 생생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단한 의지로 망치계 하지 않고 이어가기, 오히려 이런 방향에서야말로 새로운 것을 조화해야 할 터이다. 마차의 저 풍경은 언제든지 근사한 것이며 처녀들의 독창적인 의상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함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¹⁸⁾

2) 아침의 저러한 한 때는 그에게는 조용히 즐기는 시간이었으리라. 실내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우아하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가게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루아침이나 저녁에 만들어진 분위기가 아니었다. **영원한 세기의 서구 전통**이 거기에 스며 있어 보였다.¹⁹⁾

1)을 보면 화자는 만주의 기차 안에서 차를 피는 노인에게서 차 문화를 깊이 향유하는 살아오면서 갖춘 품격인 ‘몸에 밴 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2)를 보면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는 서양인의 모습에서 ‘영원한 세기의 서구 전통’을 감각하기도 한다. 이때의 전통의 순수함은 민족적 차이를 내포한 채 보편성에게까지 이를 수 있

17) 이효석,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일본어), 『만주일일신문』, 1940. 11. 26-27, 『이효석전집』 7권, 창미사, 2003, 319쪽.

18) 이효석,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일본어), 『만주일일신문』, 1940. 11. 26-27, 『이효석전집』 7권, 창미사, 2003, 319쪽.

19) 이효석, 「대륙의 껍질」(일본어), 『경성일보』, 1939. 9. 15-19, 『이효석전집』 7권, 창미사, 2003, 260쪽.

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방에 의한 동일화는 미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거부되며 그는 신경 수도 건설을 예로 든다. 신경의 수도 건설은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서 경이로운 것이지만 만주의 문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이나 동경과 차이가 없어 모방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문화적 순수함과 다양성의 추구는 북방인(슬라브인)의 거대함을 과거에 묻어두고 하얼빈에서 퇴장하는 “가멸지긴 하나 슬픈 거리”의 사람들의 애수에서도 포착된다. 슬라브 문화는 “서구의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그 본질에는 일종의 야생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교양이 있음에도, 맨발의 여인의 어딘가 세련되지 않은 품성까지도 꼭 닮아 있는 것”²⁰⁾이기에 매혹적으로 인지된다. 여기서 유럽 문화의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힘으로 암시된 타자화된 기표²¹⁾로서 슬라브 문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얼빈에서 손쉽게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 연주가 하얼빈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유럽적인 것인가. 또는 어느 곳의 것인가. 그런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려 살아 있는 것은 지키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외래의 것도 이 땅의 문화로 수용하여 자기의 전통으로 계승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이다.

유럽 문화의 타자로서 슬라브 문화에 대한 긍정은 조선 문화 역시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는 다양한 타자성 중의 하나로 긍정하게 한다. 그런데 이효석은 조선 여인의 한복이 “극히 자연스러운 기품과 그윽함, 균형 잡힌 모양에 단련한 정감” 있는 옷이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여기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²²⁾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민족적 정체성이 드러나

20) 이효석, 「북만주 소식」(일본어), 『조선급만주』, 1939, 11, 『이효석전집』 7권, 창미사, 2003, 275쪽.

21) Bill Ashcroft 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254쪽.

는 한복을 입는 것은 중국인 마부들이 마차에 태워주지 않을 정도로 만주에서는 차별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따라서 한복을 입지 않고 일부러 양장을 입고 다닌다는 사실을 통해 만주에서 조선인은 일본 식민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만 존재가능한 분열적 위치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효석은 만주라는 공간이 비록 오족협화가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조선의 민족적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사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²³⁾ 조선인의 현실과 만주의 편협함에 대한 자각은 “이보다 더 슬프고 치욕스런 일이 있을까요?”라고 분개로 이어진다. 사실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경멸은 일본인에 대한 굴종의 감정을 예비한 것으로 굴종과 경멸의 감정이 복합된 것이다. 만주는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오족협화가 공문화된 공간이지만, 식민자의 문화와 권력이 지배하는 위계적인 공간인 셈이다. 따라서 조선인에게 만주는 ‘이역’이라

22) 이효석, 「가을」(일본어), 『조선화보』, 1940, 10, 김남규 편, 송태옥 역, 『은빛송어』, 해토, 2005, 84쪽. 이처럼 이효석의 의식 속에는 전체로 회수 되지 않는 전통과 문화의 정신이 있고, 이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연관된다. 「은은한 빛」에는 문화와 전통을 바라보는 두 개의 입장이 대비된다. 백빙서는 타자에 의해 조선의 전통이 발견되고 그것이 다시 조선인에게 역수입되기도 하지만, 이는 “적어도 타인의 풍부함이 우리에게 반성을 환기”시켜 주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육은 문화를 체질과 풍토적인 것으로 본질화하고 이것이 민족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육의 태도는 일본의 문화 본질주의에 대항한 것이나 실은 이항대립적인 모방일 뿐이다. 이효석은 전통에 대한 시원적 동경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의 공간에서 비롯되는 차이와 유연성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23)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전에 『매일신보』(1940. 1. 25-7. 2.)에 「창공」으로 연재되었던 『벽공무한』에서, 하얼빈은 서구 문화와 교양을 생활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일마는 러시아 무희 나아자에게서 보이는 동양 사람다운 침착함을 좋아하고, 나아자 역시 일마와 결혼한 후 경성에 와서 팔각당을 본 후 “동양의 아름다운 것을 참으로 즐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탄하고, 한복의 아름다움에 반하는 것도 그것이 전통적 미의식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문화라도 보편적 미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문화적 차이와 타자성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일본(동양) 회귀를 통해 서양 근대 문명을 초극하려는 일본의 근대초극론에 대해 거리를 두게 한다. 이효석, 『벽공무한』, 박문서관, 1941. 8. 260쪽.

는 이질성으로 감각되기도 하는데, 이는 식민지 조선의 문화를 표출할 수 없는 폐쇄성과 식민자로 기호화 되어야 인정받는 주체 상실, 주체 부정의 상태에서 비롯한다.

이효석은 문화적 전통의 순연성과 다양성을 파괴하는 현실을 자각하면서 그 파괴의 실체를 포착하게 된다. 그가 포착한 현실은 시장 논리에 의한 개발 욕망과 식민 지배자의 사상과 문화로 일체화하려는 식민지배자의 동일성의 논리였다. 이런 이유에서 만주에서 이국적인 문화와 전통의 순수함을 감각할 수 없게 하고 향락 문화를 조장하고 소비하는 만주의 개발자이자 경영자인 일본인들이 그의 시야에 포착된다. 1935년 3월, 만주국의 북만(北滿) 철도 접수를 계기로 하얼빈의 실권이 만주국(일제)으로 넘어가고, 그 후 하얼빈의 문화와 교양은 이국적 정서와 환락을 소비하는 장으로 변질된다.²⁴⁾ 그래서 대련, 여순 등의 전적지 순례를 마친 ‘국방복의 여행자들’(일본인)이 “때를 지어 거리를 제 것인 듯 멋대로 걸으며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른다. 기죽은 데가 없이 사람한테 부딪치며 의미 없는 하라쇼를 연발”²⁵⁾하고, 무희에 대한 예의 없이 짝 꺼안고 있는 등의 일본인들이 보여주는 물문화적인 타락상을 고발한다. 그는 “우열한 경술함은 단단히 삼가해야 하는 것. 제멋대로 하는 짓의 흉내내기란, 인간성에 있어서, 한 걸음 졌다는 사실을 증명”²⁶⁾한다고 비판한다. 여기에서 만주 개발자로서 일본인은 물질 욕망에 사로잡힌 속물이며, 근본적으로는 서구를 흉내 내는 모방자 즉 피식민자일 뿐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문화를 존중할 줄 모르는 문명 개발자와의 동일시를 거부하는 태

24) 高媛, 「낙도를 달리는 관광버스」, 吉見俊哉 외,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237-238쪽.

25) 이효석, 「대륙의 꺾길」(일본어), 『경성일보』, 1939. 9. 15-19. 『이효석전집』 7권, 창미사, 2003, 262쪽.

26) 이효석, 「대륙의 꺾길」(일본어), 『경성일보』, 1939. 9. 15-19. 『이효석전집』 7권, 창미사, 2003, 262쪽.

도이다. 이런 철저한 거리두기 방식으로 볼 때, 만주는 “마도로스스파이프를 문 쥐처럼 생긴 사내는 지갑에서 꺼낸 돈몽치를 펼쳐 상대방에게 뭘가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살금살금 3등칸으로 사라”지고, “부처처럼 얼빠진 듯한 얼굴을 가진 관리인 듯한 사내가 유창한 말솜씨로 같은 방의 친구들과 대륙의 경륜을 당당하게 읊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한 시간쯤이 지나자 코를 골면서 입을 동굴처럼 벌리고 있는”²⁷⁾ 속된 개발자의 가벼움과 속물스러움이 횡행하는 도시가 된다.

이러한 개발자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국 청년도 이효석에게는 부정의 대상이다. 즉 신경의 홀에서 스마트한 양복을 입은 중국 청년이 씩 분명한 일본말로 인사를 하자 “무심코 조선말로 답례하여 두서너 마디 하는 사이에 나는 내 말을 알아들을 이치가 없는 중국 청년임에 생각이 미치자 낭패”²⁸⁾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 청년의 댄스나 홀에 대한 설명보다 차를 따르는 늙은 보이에게서 만주의 문화를 얻고 싶어 한다. 개발자를 모방하여 일본어로 소통하려는 청년의 모습과 문화적 순수함을 드러내는 노인의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개발자와 동질화하는 문명을 비판하고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을 옹호한다.

그러므로 개발자 내지 그 논리의 근원인 파시즘의 확장은 이효석에게 불안을 야기한다. 이 불안은 다양성이나 우연성이 존재할 수 없음에서 유래한다.

학자들은 진화의 범측으로 설명하구 필요의 이치를 따지지만— 손가락이 여섯인들 그다지 거추장스럽구 불필요할 것이 무언구. 그때위 열은 설명보다두 내가 알구 싶은 건 창조의 진의— 무슨 까닭으로 하필 현재의 이 우연한 결정이

27) 이효석, 「대륙의 껍질」(일본어), 『경성일보』, 1939. 9. 15-19. 『이효석전집』 7권, 창미사, 2003, 252쪽.

28) 이효석,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일본어), 『만주일일신문』, 1940. 11. 26-27. 『이효석전집』 7권, 창미사, 2003, 319쪽.

있게 되었는데—현재가 이미 우연일 때 현재와 다른 우연의 결정을 생각할 수가 없을까²⁹⁾

인용문에서 보듯, 독일의 파리 함락 이후 ‘나’는 “현재의 이 우연한 결정이 있게 되었는데”, “지금보다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연성에 대해 생각한다. 이 우연성(contingency)은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식민자와 비동일적 주체를 구성하려는 태도로써, 개별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다원주의에 그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다. 이효석은 식민자와 비동일적 주체를 구성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없애고 일체화하는 전체주의에 저항하며 다원주의의 구성 원리로 합리성과 지성, 개성을 강조한다.³⁰⁾

이런 맥락에서 이효석은 박치우와의 1938년 신년 대담³¹⁾에서 광신성의 반대물인 지성과 합리성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과시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토마스 만과 소련의 문화적 폐쇄성과 획일주의를 비판하는 앙드레 지드도 높이 평가한다. 개별성과 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송화강에서 보트를 타고 낚시와 독서를 하는 부부의 풍경을 전체주의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정세와 대비하여 인상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구라파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개인 개인 다 제 나름이지 전체로 낫구 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³²⁾라는 언급에서도 전체성을 부정하고 이로 회수될 수 없는 개별성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는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과 우연성을 정신적 토대로 삼는 서구의 르네상스

29) 이효석, 「하얼빈」, 『문장』, 1940. 10. 7쪽.

30) 절대적 우연성은 세계에는 어떠한 법칙적인 원리나 주어진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여 비합리주의로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은 변하라고 생긴 모양이야”(7쪽)라고 반응하면서도 음울과 불안에 빠지는 것을 보면 절대적인 회의주의자, 절대적인 우연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1) 이효석, 박치우 대담, 「지성옹호와 작가의 교양」, 『조선일보』, 1938. 1. 1.

32) 이효석, 『벽공무한』, 박문서관, 1941. 114쪽.

스 정신과는 동일화하는 동시에 속물적 개발자의 논리와는 비동일화하면서 자신의 주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식의 표출이다. 이러한 의식은 부정적 현실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심미주의 경향과 예술의 자율성으로 수렴된다.

다양성과 우연성에 기반을 둔 심미적 삶의 추구가 역사적 현실을 토대로 할 때, 그 현실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효석에게 나타나는 심미적 삶의 추구는 역사성을 탈각한 채 현실을 실제의 현실이 아닌 문화적 차이들로 치환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이효석은 프랑스 영사관의 평범한 모습 속에 비친 탈권위적인 민주주의적 면모에 공감하면서도 프랑스나 네덜란드가 제국을 확장하려는 욕망으로 만주에 거주했던 역사적 사실을 무화시켜 버린다. 또한 만주에서 조선 문화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단지 “불결한 차부조차 이쪽을 경멸”하고 경멸하는 쪽이 곧 “애정을 거부하는 쪽”이라고 단선적으로 치부함으로써, 만주의 식민지 현실을 단지 개개인의 애정이나 태도의 문제로 수렴해 버리는 정치적 무감각을 보여 준다. 이는 이효석의 문화적 정수나 미의식 추구가 현실을 상상적으로 예술의 세계 속으로 재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따라서 이효석이 만주에서 찾은 문화적 보편성이나 우연성은 탈역사화된 미의 세계 속에서 ‘의식’으로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3. 반동일적 주체 구성과 계몽의 시선— 이태준

이태준의 「이민부락견문기」에서 만주는 문명과 야만의 공간으로 구획된다. 식민자의 지배에 저항하면서도 식민자의 논리인 계몽 담론이 만주를 보는 시선 속에서 반복된다. 1934년 11월에 개통된 만주 관광의 새로운 중심인 ‘동양일의 쾌속차라는 대련 하얼빈 간의’ 특급 ‘아세아’를 타고

근대 문명과 그것이 가능하게 한 여행 자체를 즐긴다. 철도로 대변되는 근대문명에 대한 매혹은 만주를 자연의 공간으로 파악하고 자연에 맞서 근대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바치기도 하는 등 우월한 문명이 타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식민자의 논리를 반복하며 식민 주체를 모방하게 한다.

나는 ‘봉천 안내’에서 얻은 지식으로 택시를 타고 ‘아마도 호텔’로 갔다. 전승 기념비를 가운데 놓은 대광장 한편에 홀립(屹立)한 아메리칸 르네상스식이란 단아한 4층 양관, 북국에보다는 녹음 많은 남국에 더 조화됨직하게 노천낭하(露天廊下)가 많은 백악(白堊)의 전당이다. 클락에 가방과 외투를 맡겨 놓고 식당으로 갔다. 구석구석에 벽안(碧眼) 신사 숙녀들이 향기로운 커피와 빛 고운 과일들을 먹는다. 나도 신선한 아침 메뉴가 주는 대로 조반을 마치고 나와 신경(新京)행 특급 ‘아세아’의 급행권을 뷰로에 부탁해 놓고 거리로 나섰다.³³⁾

위와 같이 이태준은 식민 주체를 모방하여, 호텔이나 기차, 식당에서 일본어와 일제의 제도를 사용하며 만주의 근대 문명을 향유한다. 그러나 “제도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일본어의 세계가 아니었다.”³⁴⁾는 현실에 당황하는 일이 발생한다. ‘나’는 쾌차를 모는 마부에게 “하꾸부스깡”(박물관)으로 가자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어를 “차부는 누런 이빨만 내어놓을 뿐 못 알아듣는다. 지도를 꺼내 박물관의 위치를 지적하여도 도시 모르는”(167쪽)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제를 부정하면서도 일본어와 제도에

33)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조선일보』, 1938. 4. 8-4. 21. 민족문화연구소,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007, 124쪽.

34) 당시 만주국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민족자결 원칙’을 위반했다는 국제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본어 외에 다른 언어도 인정하는 다중언어제를 실시했지만, 국내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중국어가 담당하던 제도적 지위인 ‘국가의 언어’를 일본어에 부여하여 ‘동아 공통어’로 사용하는 이중정책을 폈다. 安田敏朗, 「제국 일본의 언어 편제」, 三浦信孝 외,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97-98쪽.

기델 수밖에 없는 모순에 직면하고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로 말을 거는 것은 문명인으로서의 식민 주체와 상상적인 동일시를 이루는 행위와 같다.

이태준이 굳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이유는 만주의 역사를 근대적 지(知)로 계보화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근대적 지의 계보화는 진리를 생산·유포하는 전략으로써, 타자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이때 진리란 특정 담론의 법칙 체계에서 소통되는 진실을 의미하며, 그 진실을 통합하고 규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 그러므로 근대적 지의 생산은 권력 자체이자 지배 욕망에 다름 아니고, 피식민지인의 진리에 대한 권력 투쟁은 식민지 본국의 지배 충동을 모방하기 마련이다. 박물관 관람 후 화자가 “대륙민족의 정력, 유한, 치밀, 원숙, 이런 것은 십이분 느껴지나 우리 고려나 이조의 센터멘털이나 유머와 같은 좀 더 감상적인 데를 찢러 주는 것은 너무 없었다.”(125쪽)며 감상을 말하는 것도 진리를 생산하는 전략이다. 식민지에 의해 규정된 조선적 본질을 토대로 새로운 타자인 만주(중국) 문화의 본질을 상상하고 있다. 이처럼 만주 문화에 대한 가설적인 표상을 통해 만주의 문화적 리얼리티를 규정하는 태도는 타자를 투명한 대상으로 만들어 그 대상을 지배하려는 식민자의 의식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의식은 만주인을 ‘토민’이라고 호명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대상을 투명하게 하여 본질로 규정하려는 태도는 문화 본질주의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문화 본질주의는 문화를 통해 순수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복원할 수 있다는 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문화나 유물을 순수한 기표로 만들어 대상으로부터 역사적, 체계적 위치를 박탈하여 기호로 표상하고 이를 풍토나 체질의 문제로 치환시킨다.³⁵⁾ 이는 타자의 문화를 본질주의적으로 규정하여 그것을 지배하려는 욕망에 다름 아니다. 이태준은 조선인 개척촌인 ‘장자위후’를 어렵게 찾아가서, 만주의

35) 小森陽一, 『日本語の近代』, 岩波書店, 2000, 25쪽.

본질을 ‘단조’로 투명하게 규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즉 그곳 이주민의 농가에 들어가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커다란 단조(單調)가 숨이 막히게 짝 누른다. 아무것도 물어보거나, 생각하거나 할 맥이 없어진다. 그저 입을 딱 벌리고 바보가 되어 누워 버렸으면 좋을 환경이다.”(135쪽)라고 만주의 풍토를 ‘단조’로 규정짓는다. 만주의 땅과 환경을 거대하지만 우수한 문화를 산출해 낼 수 없는 열등한 곳으로 규정하고 만주는 이렇다 할 문화 주체가 없이 자연만 있는, 비어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태준은 조선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식민지배자의 지(知)의 방법을 모방하여, 만주를 계몽의 대상이자 새로운 타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주민의 학교 교육에 관심을 두는 이태준의 태도이다.

에초엔 우리 이민부락들이 연합해 가지고 설립 유지한 것인데 인진 만주국서 인수해 가지고 그들의 방침하에서 경영되는 것이니까 불원(不遠)하여 교과서나 교원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 한다. 그것보다 오히려 만보산 일대는 수도의 인접지라 국경지대나 마찬가지로 조선인 이민지구가 아니니까 어떤 정리를 당할지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140쪽)

인용문을 보면, 이태준은 만주국의 방침에 의해 조선어와 민족 교육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어의 유지는 민족의 유지이자 일제에 대한 저항적 행동으로 간주한다. 요컨대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일은 조선의 정신을 빼앗기는 일이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어말살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태준은 “朝鮮글로 된 것이야 조선문학”³⁶⁾이며, “우리 독자의 문화를 표현할 경우의 맞은 조선어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지어로 표현하면 그 내용이

36) 이태준, 「‘조선문학’의 정의」, 『삼천리』, 1936. 9, 98쪽.

내지화해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 독자의 문화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³⁷⁾라며 조선 문화의 근간이 조선어라고 주장한다.³⁸⁾ 그런데 조선어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태준의 태도는 언어에 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긴다는 일본의 본질주의적 태도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태준은 일제의 언어, 역사, 전통의 내용에 동일화하기를 거부하면서도 그 자리에 조선적인 것을 이항대립적으로 위치시켜 일제의 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언어, 역사, 전통의 목적과 역할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모방적인 것이다.³⁹⁾ 요컨대 이태준은 일제의 목표와 정책을 저항하면서 모방하는 방식, 즉 반동일화(Counter-Identification)의 방식으로 조선인 내지 자신의 주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반동일적인 모방은 식민 주체의 자리에 조선을 치환시키기 때문에, 식민자를 표면에서 지우거나 사실의 왜곡을 불러온다. 만보산 사건을 다루는 「농군」⁴⁰⁾에서 그런 굴절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31년 중국 농민과 조선 이농민이 충돌한 이 사건은 조선 이주민의 만주에서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만보산 사건은 만주국 성립 이전으로 중국 측은

37) 좌담회, 「조선문화의 장래」,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 역락, 2009, 286쪽. 이 좌담회는 『조선문화의 장래와 장래』라는 제목으로 『경성일보』(1938. 11. 29-12. 8.)에 연재 후, 『문학계』(1939. 1.)에 조선문화의 장래』로 재수록된다.

38) 해방 후 「문학자의 자기비판」이라는 좌담회에서 “그렇게 쉽사리 일본말에 붓을 적시는 사람은 은근히 가장 원망했”다며 조선어 말살정책에 협력해서 일본말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은 민족적으로 중대한 반동이라고 진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좌담회, 「문학자의 자기비판」, 『인민예술』 제2호, 1946. 10.

39) 이태준은 『왕자와 호동』(『매일신보』, 1942. 12. 22-1943. 6. 16.)에서도 반동일화 방식을 보여준다. 즉 이 소설에서 원시적 시원을 낭만적으로 동경하고, 죽음을 통해서 낭만적 사랑을 성취한다는 아이러니적 방식을 이용해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한(韓)민족 의식과 일체감을 느끼는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저항/순응하는 상상적 일체감을 갖게 한다. 진영복, 「네이션(Nation)의 서사학과 낭만성」, 『대중서사연구』 15호, 2006. 6. 30. 193-194쪽.

40) 이태준, 「농군」, 『문장』, 1939. 7.

조선 이주민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양국 공동조사에 따르면 중국 농민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장춘현 현장이 계약 사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조선 이주민은 일본영사관의 명령에 의해 수전(讞)을 만들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일본영사관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파견한 일본경관의 보호를 받으며 공사를 완성한다.⁴¹⁾ 만보산 사건은 일제가 조선 이농민을 방패막이로 삼아 행한 침략 정책인 것이다. 「이민부락견문기」에서는 일본영사관의 역할이 숨겨져 있고 중국 군대가 나와 총을 쏘게 되었지만 단지 공포용이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조선에서 잘못된 정보로 중국인 살상이 생겨 유감이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농군」에서는 중국 군벌에 의해 조선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처럼 재현하여, 이 사건을 중국 군벌(농민) 대 조선 농민의 대립으로 형상화하고 그 책임을 중국 군벌에게 돌리고 있다. 이는 중국 군벌에 대한 부정성을 강화하고, 만주에서의 조선 민족의 계몽의 역할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은 만주를 일제가 지배하는 현실적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조선 유랑민의 상상적 공동체, 즉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자가 생명의 의욕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영토로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때 이중의 왜곡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일제의 군사적, 경제적 힘과 조선 이주민의 상관성을 지워 버리는 것이다. 만보산 사건을 중국 군벌 대 조선 이주민의 대립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배후에 있는 일제의 방패막이로 만주를 개척되는 조선 농민의 모습과 일제의 침략 정책을 문맥에서 지워버린다. 두 번째는 만주를 계몽의 타자로 자연화시켜 개척의 대상으로 만든다. 즉 중국 군벌(농민)을 계몽의 타자로 위치시키고, 그 타자가 계몽 주체인 조선 농민을 살상하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

41) 日本移民史研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東京:龍溪書舎, 1976, 536쪽.

한다. 이러한 이중의 왜곡과 조선 농민을 희생자로 위치시키는 수난자 모티프를 통해 조선 이주민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식민자(계몽)의 타자인 조선 민족을 식민자 즉 계몽의 주체로 지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이태준의 반동일화 전략은 만주에서 조선 민족이 수탈과 억압을 당하는 집단이라는 신화를 구성하여, 식민자들에게는 증오심을 갖게 하면서 또 다른 타자에게는 정복의 욕망을 드러내는 이중적 태도로 드러난다. 일본적인 것에 대항하기 위해 그것에 조선적인 것을 대립시켜 민족적인 정체성과 집단 기억을 구성한다. 이처럼 제국주의 식민자를 적대하면서 민족이라는 탈식민 주체를 구성하는 반동일화 방식은 욕망의 대상인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만 주체가 자신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주체가 적합한 자기 동일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타자와의 동일시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조선 민족을 만주의 개척자로 위치지우려 할 때, 필연적으로 식민 주체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⁴²⁾ 식민 주체의 계몽의 꿈을 부정하면서 모방하는 이런 역대칭 구조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 대상을 옹호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여준다. 이는 부정 대상의 사고체계 내에 갇히게 되는 반동일화 전략의 필연적 결과의 한 사례이다.

42) 파타 차터지(Partha Chatterjee)의 설명에 따르면 계몽의 논리는 한계가 있는 논리이다. 왜냐하면 국가 안에서 계몽 담론이 주장되기 위해서는 계몽의 타자가 필요한데, 만일 계몽이 진정으로 실제 국가에서 그 자신을 현실화한다면, 계몽 담론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Homi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282쪽.

4. 동일화의 주체 구성과 동조의 시선— 이석훈

일제말기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대륙병참기지화에 필요한 인적 자원 공급의 일환으로 일본인의 이주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장려된다. 이석훈의 「北の旅」⁴³⁾은 만주 이주 정책을 독려하기 위한 소설로, 채만식, 이무영, 정인택, 정비석과 함께 조선인의 만주 이주 현황을 시찰한 후 쓴 것이다.⁴⁴⁾ 이 소설은 주인공 철이 간도 지방의 시찰을 마치고, 20년 전 고향을 떠나 만주에 정착한 숙부를 찾아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숙부가 거주하는 만주의 이민 부락은 빈약했으나, 숙부는 “우리는 일본 편에 서”야만 한다는 신념으로 만주에 정착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또한 만주에서 태어난 어린 시촌동생을 보고, 철은 “황막한 자연과 혼돈 하는 사회 사이에 태어난 만주의 자식”(33쪽)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체코 기충으로 무장한 자위단의 모습과 징병을 앞둔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어 아학이 행해지고 있는 풍경에서도 ‘북만의 흙’이 되려는 개척 정신을 발견한다. 주인공은 새로운 식민공간으로 만주를 개척하고 그 곳의 식민자가 되려는 조선인의 의지를 개척정신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동조의 시선으로 격려하고 있다.

이석훈은 「滿洲の話」에서 만주국을 자원과 땅이 풍부하여 2억의 인구를 포용할 수 있어 조선의 과잉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미대륙 발견”에 비유되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인식한다. 조선 이주민이 백오십만 명에 이르는 만주는 “우리나라와 절대불가분의 운명에 있는”⁴⁵⁾ 현실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그는 만주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방책을 내놓지

43) 이석훈, 「北の旅」, 『國民文學』, 1943. 6.

44) 이 소설은 1942년 12월 26일 간도성 홍보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조선문인협회 일원으로 만주를 시찰한 것을 바탕으로 있다.

45) 이석훈, 「滿洲の話」, 『新時代』, 1944. 5, 72쪽.

못하는 조선 지식인들에 대해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질책하기도 한다. “만주국의 인구 사천삼백만인데, 그 중에 한(漢)민족이 사천만, 일본내지인 팔십만, 만주민족은 한민족에 동화되어 불명, 조선인 약 백오십만, 몽고인 백만, 백계 러시아인 육만 명”(73쪽)이 만주국에 영주하는 상황을 설명한 후, 만주국의 정책을 설명한다.

일본의 황도정신이 민족협화의 정신이고, 타민족을 포용하여 이상 세계를 만든다. 현재 만주국에서 교육 받은 자는 일할 정도이다. 일본의 좋은 점을 수용한 동양도덕을 기초로 하여 서양의 소란스러운 점은 들이지 않는다.(73쪽)

만주국이 동양 정신에 기초한 건국이념에 따라 서양처럼 의회정치를 하지 않으며 인민과 관이 함께 하는 협화회 중심의 도덕 정치를 한다고 찬양한다. ‘도의 세계 건설’⁴⁶⁾을 목표로 삼는 “20세기의 위대한 창조”이며 “인류의 대낭만의 실험”⁴⁷⁾이라며 만주국의 선전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칭송한다. 반면에 만주에 거주하는 팔십만 명에 지나지 않는 일본 민족이 사천만 명의 중국 민족을 지배하는 상황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는 이석훈이 2등의 모방된 식민자로 일본의 만주국 지배에 편승하여 조선의 확대된 영토, 식민지를 만주에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의 투사이다.

식민자의 지위로 격상할 수 있다는 신념을 토대로 한, 식민자와의 동화를 통한 주체 구성 전략은 1941년 「고요한 폭풍」 3부작에서 이미 세밀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주인공 소설가 박태민은 1940년 6월 파리가 함락

46) 회란 훈민조서(回鑾訓民詔書)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1. 민족 협화, 2. 일본과 일덕일심, 3. 도의 세계를 만든다는 원리에 기초해 있다. 만주국은 일본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동양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서양식의 요란스러운 점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쁜 인간이나 나쁜 자본가들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다는 것이다.

47) 그 증거로 옛날 장춘의 20배, 동경의 70%에 해당하는 국도 신경의 건설을 예로 든다. 이석훈, 「滿洲の話」, 『新時代』, 1944. 5, 75쪽.

되면서 반과시즘 전선이 붕괴되는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자 내선일체를 자신의 신념으로 선택한다.

나는 조선의 오랜 역사를 통해 그 중심도 없고 통일도 없는 민족의 생활의 누적을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중략 인용자) 백성을 진정한 중추로 존경하고 죽음으로써 백성을 받든 군주가 있던가? 동포들 서로가 굳게 맺은 연대가 있었던가? 더욱이 우리의 선조들은 대륙에 추종하고 이부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던가(중략 인용자) 우리의 행복의 피안에 **일본이라는 광명을 찾아 민족의 새로운 신화를 가지자**. 이 신화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창세기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동포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박태민의 강연회 내용은 내선일체의 동일화를 통해 조선의 밝은 미래를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의 선언이다. 박태민은 그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녹기연맹과 조선문인협회 등의 단체에서 일한다. “이 나라에서 작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친 시대의 폭풍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생활해서는 안 되었다. 의식적으로 시대를 호흡해야 했다. 먼저 소승적인 민족적 입장을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높은 대승적 지성과 예지가 필요”(58쪽)하다고 판단하여 확실한 의식을 얻기 위한 실천 의지로 시국 강연대에 참여한다. 강연 여행으로 조선인 동료들에게 조소와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이런 험한 시대에 누가 자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을까?”, “조소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차라리 편할 거라는 생각”(63쪽)을 하며 “일본을 의식하지 않는 조선 민족이야말로 거짓말”(76쪽)이라고 스스로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의 예상대로 강연에서 조소의 시선을 받기도 하고, 위협에 의해 행해진 위장된 강연이 아니냐는 야유어린 질문을

48) 김재용·김미란 편역 『식민주의와 협력』, 역락, 2003, 78쪽. **고요한 폭풍**(일본어) 1부는 『國民文學』 1941년 11월에, 2부는 『國民文學』 1942년 6월에, 3부는 『綠旗』 1942년 11월에 연재된다.

받기도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며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강조한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군국주의의 세계 확산을 우려하는 대신 ‘동아 해방’의 서곡으로 인식하여 “드디어 해냈군요!”(99쪽)라며 일본인과 같이 흥분한다. 예전 강연회에서 자기를 의심하고 조롱했던 동료와 기자들도 사과의 전보를 보내와 그의 행동의 정당성이 확인되기도 한다. 게다가 그가 바라던 대로 2년 후에 조선에 징병제도가 실시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자신의 신념의 정당성을 재확인 받고 “아야! 드디어 조선은 여기까지 왔구나”(101쪽)라고 기뻐한다. 소설은 조선인의 징병으로 내선일체가 실현된다는 희망으로 끝난다. 이석훈은 징병이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차별이 사라지고 동일한 국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

식민 지배자와의 동일화의 염원은 일본어 사용에 큰 의미를 두고 일본어 사용에 적극 동참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는 조선 문학 작품을 조선어로 쓰고 국어(일본어)로 번역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논리적 유희’라고 단정해 버린다. “언어라는 것은 민족의 정신과 생리에서 탄생되는 하나의 혈연적이고 유기적인 것이므로 일본적인 국민문학은 일본어 이외에는 달리 적절한 표현어가 없기 때문”⁴⁹⁾이라고 그 근거를 보탠다. 이석훈은 언어와 정신까지 식민지 지배자와의 동일화(Identification)를 통해 주체를 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내선일체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총동원체제로 조선을 끌어들이고 회유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사실 내선일체의 이데올로기는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식민자의 이데올로기이다. 내선일체는 궁극적으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동일한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49) 이석훈, 「새로움에 대해」, 『동양지광』, 1942. 6.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 역락, 2009, 171쪽.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대로 실천된다면 피식민지는 그의 지위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나 동일시란 타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에, 식민지 조선은 ‘거의 동일하지만 동일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식민 주체 일본과의 동일시는 끊임없이 연기된다. 그러므로 내선일체는 모방의 지점이면서 다른 한편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비동시적이며 비대칭적 관계 속에 있는 균열과 어긋남이 노출되는 혼성성의 지점으로, 이 구조물의 양가성은 혼성화된 식민주의적 주체나 식민주의적 모방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호미 바버는 “어떤 종류의 지배 담론이든지 그 구조 속에는 일종의 저항적 구조물이 구축되어 있다.”⁵⁰⁾라고 했는데, 식민 지배담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내선일체는 일종의 저항적 구조물인 셈이다. 이석훈이 내선일체라는 동일화를 통해 피식민지의 지위를 탈피하고자 했지만, 내선일체의 균열을 경험하고 황국신민 되기, 동일화의 주체 구성에서 실패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과정이 「고요한 폭풍」의 후일담인 「善靈」에 상세히 재현되고 있다. 또한 이석훈이 1943년 후반기에 돌연 만주로 이주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환멸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는 소설이다.⁵¹⁾ 이 소설은 2, 3년간의 자기의 상태를 ‘울적했던 감정의 폭풍’으로 규정하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 변명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50) Bill Ashcroft 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173쪽.

51) ‘만주예문연맹’이 대동아전 2주년을 맞아 ‘전국예문가회의’를 1943년 12월 4일과 5일에 개최했는데 주요한이 조선문인보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에 대한 보고에서 “조선문인보국회의 소설 회곡부 간사장인 마키 히로시 군이 때 마침 신경에 내입해 이번 회의에 함께 출석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으며, 앞으로 마키 히로시 군이 만주문예가협회에 가입해 조선인 작가로서 크게 활약해 줄 수 있도록 아마도 위원장의 쾌락(快諾)을 받은 일도 하나의 수확이”라는 주요한의 기록으로 미루어, 이석훈이 1943년 하반기에 이주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한, 「결전하 민주의 예문 태세」,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 역락, 2009, 251쪽.

오히려 소심한 인간이다. 단지 그는 시골무사의 혈통을 이어받은 소시민 출생이지만 대단이 성격이 급하고 평상시 온건하고 완만한 한편으로 다혈질적인 면도 있어 무슨 계기에 스스로조차 의외로 느낄 만큼 대담해지며 때로는 **터무니없다는 말을 들을 만한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선다, 이와 같은 성질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의 면전에서 대언장어한 것이 허위였거나 야유였거나 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는 어느 쪽이나 하면 솔직한 감격성의 남자이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놀라움을 놀라움으로 표현하고 시시하고, 기다란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감에서 오는 신념의 화염이 그의 이지(理智)의 끝에 점화한 것이었다.**⁵²⁾

그는 그의 내선일체 선택이 급격한 세계정세 변동에 대한 놀람과 충동에 의한 극단적인 행동인 측면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이지만 강요된 동일시로 인해 박태민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혼란과 모순을 경험한다. 동일화의 전략은 피식민자로서의 자아(ego)가 갖게 마련인 제한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행위이지만, 강요된 동일시는 늘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녹기 연맹의 ‘우두머리(大親分)’를 동경으로 보내는 환송회에서 “큰 단체 속에 굳건히 양다리로서 있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동지라는 확신이 있다면 고독하지 않을 텐데”(97쪽)라며 이질감과 고독감을 느낀다. 또한 혼란과 이질감 등으로 “그는 집에 들어가자 무거운 피로감을 느꼈다. 잠자리에 누워 오랫동안 전전반측하면서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가면 나는 파멸이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중얼거리면서 몹시 고민”(97쪽)한다. 그리고 단체의 장을 ‘오야붕’이라고 호명하는데, 그 단체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속내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박태민을 단체에 대한 이질감과 조선인 동료의 지탄과 오해도 불구하고, 내선일체를 실현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신념을 확신하고

52) 이석훈, 『善靈』(일본어), 『國民文學』, 1944. 5, 88쪽(필자 번역)

그것을 단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신궁참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신궁참배에서 사소한 일로 일본인 실업가에게 모욕을 당하자, “무엇 때문에 주는 모욕인가? 이것이 규율이라는 것인가.”(98쪽)라고 내선일체와 자신의 신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성찰의 결과 자신이 소속한 단체나 식민 지배자들이 내선일체를 주장하지만 그 내부의 당파주의 즉,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2등 국민으로서의 내선 차별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⁵³⁾

박태민은 단체의 참여와 신사참배 등을 통해 식민자를 모방하고 그와 동일시하려는 행위를 통해 식민자와 유사성(resemblance)을 추구한다. 이런 피식민자의 행동은 식민주의 논리를 지지하는 행위이지만, 식민자는 이런 행동을 식민자의 지위를 넘보는 위협(menace)적 행위로 간주한다.⁵⁴⁾ 따라서 식민자는 일부러 작은 차이를 드러내고 피식민자가 어렵사리 추구한 유사성에 균열을 만들어서 배제하려 한다. 그 이유는 피식민자가 차이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때, 식민자의 우월성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민자의 배타성을 무화시키려는 피식민자의 동일화의 전략에 대한 공포와 배타적 욕망이 ‘신궁 참배’의 사소한 ‘규율’을 핑계 삼아 노출된 것이다. 박태민이 신념화했던 내선일체는 한편으로는 지배 담론의 권위를 추종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 담론을 위협하는 양가적인 기제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53) 유진오가 *신경*에서 철은 “조선 사람은 황국 신민이요 일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주에 갔지만, 만주에서는 그를 일본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욱이 만주에는 일계(日系)와 만계(滿系) 외에 또 한 가지 선계(鮮系)라는 것이 존재하고, 선계의 지위는 일계와 만계의 중간에서 있는 “복잡 미묘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다. 그곳에서 철이 만난 회사 간부나 고급 관리들도 조선 사람을 두 가지 상반된 태도로 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한 가지는 조선 사람을 만주 사람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요, 한 가지는 내지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인이 되는 과정에는 어긋남이 존재한다. 유진오, 『신경』, 『춘추』, 1942. 10, 194쪽.

54) Homi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272쪽.

그러므로 「선령」의 주인공은 녹기연맹에 환멸을 느껴 탈퇴하고, “문학 대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앞에 놓여 있는 생활의 어두운 심연에 전율”하여 생활을 찾아 숙부가 있는 만주로 떠난다. 이때 그가 선택한 만주는 식민자의 지위로 자신을 격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자의 공간일 뿐이다. 해방 후 쓴 「고백」에서 이석훈이 자신을 ‘정신적 범죄자’로 자처하고 “만주에서 나는 일본제국주의의 정체를 보다 더 명료하게 파악했고 일본의 기만정책을 더욱 뼈저리게 인식했다”⁵⁵⁾고 고백하는 데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석훈의 만주 여행서사에는 식민자와 동일화를 통한 주체 구성과 그것의 균열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를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시선의 결과와 곤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불안정한 위치를 짐작하게 하는 지점이다.

5. 결론

일제말기 만주 여행서사에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경계지점을 오가며,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다수의 시선들이 작동한다. 이 시선이 때로는 차별화로 때로는 동일화로 참여하게 드러나고, 이를 통해 여행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본고는 시선과 주체 구성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효석, 이태준, 이석훈의 만주 여행서사를 중심으로 타자에 대한 시선과 주체 구성 방식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타자들과의 동일시와 비동일시의 역학 관계와 식민자와의 관계 설정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탈식민주의적 전략을 유추할 수 있었다.

55) 이석훈, 「고백」, 『백민』3권1호, 1946.12, 45쪽.

이효석의 경우, 민주 여행서사에서 식민지와의 비동일화(Disidentification)를 통해 주체를 구성하고, 만주를 미적 자율성의 시선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만주에 혼재하는 다양한 민족문화들에서 타자성을 발견하고 세련된 감각을 통해 미와 문화의 보편성에 대해 사유한다. 이러한 보편성에 입각하여, 만주가 서울이나 동경과 같이 문명화되는 것을 모방에 의한 동일화로 간주하고 부정한다. 또한 개별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다원주의에 그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는 유연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식민지와 비동일적 주체를 구성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없애고 일체화하는 전체주의에 저항하며 다원주의의 구성 원리로 합리성과 지성, 개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성과 유연성에 기반을 둔 심미적 삶의 추구가 역사적 현실을 토대로 하지 않고 현실로부터 거리를 둔 탈역사화된 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태준은 식민지 지배자와의 반동일화(Counter-Identification)를 통해 주체를 구성하는 한편, 만주를 계몽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는 식민 주체가 만든 근대문명을 향유하면서 만주를 여행한다. 특히 만주에서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문화본질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런 태도로 만주의 역사를 근대적 지(知)로 계보화하고 식민지의 논리인 계몽의 논리로 만주를 계몽의 대상이자 조선의 새로운 타자로 규정한다. 그는 만주국의 방침에 의해 조선어와 민족 교육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일제의 목표와 정책을 저항하면서 식민 주체의 논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 즉 반동일화의 방식으로 조선인 내지 자신의 주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반동일화를 통한 주체 구성으로, 만주에서 조선 민족이 수탈과 억압을 당하는 집단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내고, 식민지들에게는 중요성을 표출하면서 또 다른 타자에게는 정복의 욕망을 드러내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식민 주체의 계몽의 꿈을 부정하면서 모방하는 이런 역대칭 구조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그 대상을 옹호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논

리적 모순을 보여준다.

이석훈은 만주국의 정책을 동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만주를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지한다. 따라서 식민자와 동일화(Identification)를 통해 주체를 구성하고자 일본의 만주국 지배에 적극적으로 편승한다. 이석훈은 식민자의 논리인 내선일체를 위해 정진함으로써, 2등의 모방된 식민자로 조선의 확대된 영토를 만주에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다. 그러나 피식민자의 지위를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순간, 내선일체의 모순을 경험하고 황국신민 되기, 동일화의 주체 구성에서 한 발 물러서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내선일체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총동원체제로 조선을 끌어들이고 회유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내선일체의 이데올로기가 사실 모방의 지점이면서 균열과 어긋남이 있는 혼성성의 지점이라는 사실이 이석훈의 여행서사에서 드러난다. 동일화의 방식에 균열과 환멸을 경험하고 만주로 떠나는데, 이때 그가 선택한 만주는 식민자의 지위로 자신을 격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자의 공간일 뿐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재용·김미란 편역, 『식민주의와 협력』, 역락, 2003.
민족문화연구소,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007.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 역락, 2009.
이효석, 『벽공무한』, 박문서관, 1941.
이효석, 『이효석전집』7권, 창미사, 2003.
『조광』, 『新時代』, 『매일신보』, 『조선일보』, 『문장』, 『國民文學』 등

2. 논문과 단행본

- 곽승미, 「식민지 시대 여행 문화의 향유 실태와 서사적 수용 양상」,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제15호, 2006.6, 229-256쪽.
김재용·김미란 편역 『식민주의와 협력』, 역락, 2003.
김 철, 「두 개의 거울 : 민족 담론의 사회상 그리기」, 상허학회, 『상허학보』 17집, 2006.6, 141-169쪽.
박일우, 「한국근대문학의 滿洲 표상에 관한 연구 : 1930~4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9.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86호, 2004, 341-360쪽.
서영인, 「일제말기 만주담론과 만주기행」,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23권, 2007, 209-238쪽.
와타나베 나오키, 「식민지 조선에서 <만주> 담론과 정치적 무의식-문학평론가 임화의 1940년대 전반의 논의를 중심으로」, 진단학회, 『진단학보』 107권, 2009.10, 277-297쪽.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윤휘탁, 「만주국의 ‘2등 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제169집, 2001, 139-171쪽.
이경훈, 「자본의 순환과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학관계-한국 근대문학의 트랜스 내셔널리티(transnationality) ; 식민지와 관광지-만주라는 근대 극장」, 국제한글문화문화학회, 『사이』 6권, 2009, 73-112쪽.
장현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만주체험」,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제14집, 2008.5, 201-217쪽.

- 정선태, 「일제 말기 ‘국민문학’과 새로운 ‘국민’의 상상」,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9집, 2009. 12, 351-379쪽.
- 정중현,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제28권, 2005.6, 229-259쪽.
- 진영복, 「민족적 주체 구성과 글쓰기 양상」,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42권, 2005.6, 349-376쪽.
- 三浦信孝 외,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 吉見俊哉 외,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 日本移民史研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東京:龍溪書舎, 1976.
- V. R. Schwartz, 노명우·박성일 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 Bill Ashcroft 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 Wolfgang Schivelbusch,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1999.
- Homi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Abstract

Manchuria travel narrative and the method of Subject construction
in the last of Japanese colonial period

Chin, Young-Bok

There are many Gaze to work for the various Subject in Manchurian travel narrative in the last of Japanese, which visits hear and there the boundary between colonizer and colonized. This one's Gaze sometimes appear sharply as differentiation and identification, with this, the traveler may reconstruct his identity.

Therefore, this article was grasped a point of Post-colonial strategy and a method by considering one's Gaze to others and a method of identity configuration as a centering Manjurian travel narrative written by Lee hyo-seok, Lee tae-joon and Lee seok-hoon.

In the case of Lee hyo-seok, he composed the Subject by disidentification with colonist in Manjurian travel narrative, and described Manchuria with an aesthetic autonomy point of view. He found Other-ness from various ethnic cultures that was mixed in Manchuria and considered universality and contingency of beauty an culture by sophisticated sense. However, to pursuit of the aesthetic life based on both diversity an contingency had a limit in the point of which was on the basis of post-historization.

Lee tae-joon composed the Subject by counter-identification with colonizer, on the other hand, watched Manchuria with an enlightenment point of view. He identified Manchuria as Other-ness based on cultural essentialism, on the other hand, with resisting to the goal and policy of Japanese, composed the Subject of chosenjin or himself by a method that imitates the logic of the colonial Subject, namely a method of

Counter-Identification. But, such method may be produced a situation where support the Subject that rather deny regardless of his intention.

Lee seok-hoon described the policy of Manshoukuo in the conformity point of view, composed the Subject by identification with colonizer. He expressed a desire for constructing in Manjuria an enlarged territory of Chosun as 2nd grade of imitated colonizer, as devoting himself to one body-japan-chosun that is logic of colonizer. However, he had been realized belatedly to have a limit that the ideology of one body-japan-chosun couldn't be an ideology of colonizer logically. (Key Words : Travel Narrative, Manchuria, Gaze, Subject, Disidentification, Counter-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Aesthetic Autonomy, Enlightenment, The Conformity point of view)

┃ 위 논문은 2010년 04월 29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0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